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음 8월 13일) 제16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쌀값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주시 도도동 한 논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쌀값 폭락... 도내 농민들 '뿔났다'

### 전북 농민회총연맹, "대북 쌀 지원 등 재고 쌀 대책 마련 정부, 서둘러 대책 마련 하지 않으면 22일 농민대회 열 것"

전북지역 농민들이 뿔났다. 농민단체들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2일 전주시 도도동 들녘에서 수확을 앞둔 논 4,000㎡를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현재 농협과 민간 RPC의 조생종 벼 수매가가 40kg 기준 3만 5,000 원대로 지난해보다 40%가량 폭락한데다 일부 RPC의 경우 아예 수매를 중단해 쌀 대안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만생종 벼가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하순이 되면 벼 수매가가 2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산 벼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다 조생종 벼 재매면적 증가와 예년보다 빠른 출하로 시장에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말 기준 전북을 포함한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톤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143만 톤보다 많다. 수요도 줄고 2년 연속 풍년으로 공급도 많았기 때문인데 올해 역시 유례

없는 '대풍'을 맞아 쌀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재고량 역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조생종 벼 가격폭락이 심상치 않다. 실제 지난해 말 조생종 벼는 1포대(40kg당) 4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평균 5만2,000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만2,000원 정도 하락된 것이다.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근심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1년(80kg

기준) 통일벼는 9만5,700원, 일반벼는 11만3,700원이었다. 지금 쌀값은 80kg으로 환산해보면 11만5,500원이다. 쌀값이 25년 전인 1991년으로 돌아간 셈이다. 농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과 해외 원조, 공공급식 확대 등으로 재고 쌀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밥쌀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식량작물인 쌀 수매를 농협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추곡수매제를 부활할 것도 촉구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서둘러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전국농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성토했다. /고민형 기자

## 북핵, 규탄 '동감' · 대처 방안에 '이견'

### 박 대통령-2야당 대표, 청와대 회동서

박 위원장은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2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대북특사를 보

내라'는 추 대표의 제안도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고 (대화

를) 시간벌기에 이용한다"며 "지금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 시키려 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고도화만 고려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있어서는 모두 함께 규탄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전주시, 추석명절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채'

## 5일간의 추석 연휴 전통문화를 내 품에

"한옥마을서 즐겁게 많이요"

창극 '아나옛다, 배갈라라' 16일 전통문화관 공연 문화장터, 경기전 앞 광장서 추석 당일 경기전 무료 개방 다양한 전통체험 제공

"전주 13개 문화시설에서는?"

전통문화연수원 · 소리문화관 전통술박물관 · 부채문화관 역사박물관 등서 전통놀이 체험행사 · 작품 전시회 운영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성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추석 당일에는 전주한옥마을 중심에 자리한 경기전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 및 13개 문화시설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뜻 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관련기사 12면>

특히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과 축제와 문화장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전주시 대표 전통문화공연인 전주마당창극 '아나옛다, 배갈라라' 공연이 오는 16일과 17일 전주전통문화관 혼례마당에서 펼쳐지고, 전주한옥마을 야간공연 '유유자적'은 오는 15일과 16일 소리문화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또한 지역공예인 작가들의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한옥마을 문화장터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전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들과 관광객, 귀성객들에게 전통의 멋과 맛을 선보인다.

시는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경기전 홍보와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당일에는 경기전을 무료로 개방하고, 가마체험, 투호놀이, 디달방아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도 제공한다.

추석 연휴기간 전주지역 13개 주요 문화시설에서도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추석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소리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등에서는 제기차기와 고무신 던지기, 천연염색, 투호던지기, 굴렁쇠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전통문화관은 가족대항 윷놀이와 풍물, 신형길놀이 등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 전통술박물관은 전통가장주 품평회와 전통술 시음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명희문화관에서는 '혼불'로 읽는 한가위, 최명희 취재수첩(김광평우)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부채문화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게임과 부채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올해는 무형문화재 박인권 개인전도 열릴 예정이다. 완

관본문화관은 한지수첩 만들기와 한지 연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도 추석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되며,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 운영'과 함께 '물뽕-그리다' 기획전시가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은 한복을 입고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선물하고 추석특선 영화 상영과 송편나누기,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다양한 한가위 한지체험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추석연휴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 관공안내소, 경기전 등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 출연진

23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24일



메인: 최성수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